

전주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탄력'

문재인 등 대선후보자들 문화특별시 지정 공약 채택에 따라... 시, 조성위 구성키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들이 전주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선거공약서를 통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역핵심공약으로 채택,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특별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전북도 역시 전주를 전통문화 대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전북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전주는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축적된 전통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활용하며 계승하는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대표도시이다.

특히 세계적 배낭여행잡지인 '본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관광명소 3대도시, 지역문화지수 전국 1위,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국제 슬로시티, 국립무형유산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점들을 이유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북은 강원, 충북과 함께 광역시는 없지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수도권화되고 있는 충북과 달리 이렇다할 성장동력이 없는 상태여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항상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함에 따라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 역시 대선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원로와 정치계,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열고 문화특별시 추진을 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채석강 고립자 신속 구조

사계절 관광지인 격포 채석강에 고립되었다가 122구조대에 신속히 구조되었다.

부안 해경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6분경 부안군 변산면 소재 채석강에 고립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122구조대와 변산해경센터에서 긴급 출동해 고립자 우모씨 등(50년생, 여) 5명 안전하게 구조했다.

고립자 우모씨 등 5명은 관광차 격포해수욕장에서 격포항으로 이동 중, 채석강 내 간조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던 중 구조에 나선 122구조대와 변산해경센터에 안전하게 구조 및 격포항으로 후송, 안전게도 후 귀가조치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도내 최초 디자인협회 출범. 지난 29일 전북디자인전문회시협회는 도내 최초로 디자인협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 어린이 초청행사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온라인 봉사 커뮤니티인 '전북엄마세상' 카페를 통해 아이들을 전북경찰청에 초대하는 행사를 열었다.

어린이와 부모 등 70여명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청사를 견학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을 경찰 기마와 순찰차, 사이드카에 태우는 체험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구성구석에 경찰의 손길이 닿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경찰이 되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문재인 후보 비방글 유포... 선관위 조사 나서

민주당 "분명한 낙선운동"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폄하하는 글이 유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지역위원회는 이날 휴대용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포되는 문 후보 비방글을 포착해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문자는 특정인이 다수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문자 내용은 '이유불문 퍼날라주세요. 참 기가 막합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로 시작한다.

문 후보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글이 지역에서 퍼지고 있다"며 "문자에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낙선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60대 덩이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역 앞에 내걸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현수막을 불태우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8)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지하고 있던ライター를 사용해 홍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질러 가로1m, 세로 1.2m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싫어하던 홍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빛더미 놓인 서민들의 고통 해소

지역 종교계 후원 잇따라

빛더미에 놓여있던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지역 종교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금융복지 상담과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복지 민간협의체가 채무변제 지원에 나서는 등 전주형 서민금융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 전북 봉축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는 지난 29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2017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에서 빛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해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후

해 전주 시민 46명을 빛의 고통과 악성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전주시 교회들이 1000만원의 부실채권 소각 후원금을 기탁했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시는 지난 1월에도 천주교 전주교구로부터 후원금 2,000만원을 기부 받아 원불교를 포함한 4대 종단이 참여하는 범시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부업체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액채무 변제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도 종교계, 기업체, 시 산하기관 등 각계각층 시민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 소각 및 소액 채무변제 지원 등 빛으로부터 고통

불교계, 부실채권 소각 위해 2000만원
전주시 교회들, 지난해 12월 1000만원
천주교 전주교구서도 1월 2000만원 기부

원금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서민 채무자의 대다수는 신용 등의 문제로 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빚을 내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 처리가 돼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시는 이처럼 빛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빛 문제로 야기되는 가정파탄과 사회생활 포기, 근로의욕 상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 절차차 상담·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금융복지 시민강좌 무료운영 △채무관리인제도 운영 △취약계층 소액채무 변제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주형 서민금융복지 정책은 이날 후원금을 전달한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 종교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부실채권 소각식'을 통

받는 시민들의 새 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빛을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신용불량자가 돼버려 빚을 상환할 수 없거나, 늘어난 이자로 인해 빛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며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님오신날 전북 봉축위원장인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은 이날 "전주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빛 문제에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실행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빛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제기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는 대부업체로부터 비인격적인 추심을 당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가정이 해체된 경우 등 빛에 억눌려 기본적인 삶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빛이 단숨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웃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부실채권 소각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